


-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 음란한 문화와 동성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추진의 죄를 회개합니다.
-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복을 기억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정부를 입술로 공격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의롭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 이 나라에 기도와 회개,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 온 나라에 거룩과 성결의 영, 죄를 씻는 보혈의 강이 흘러가 온 나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하고 예배하는 대통령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지혜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기도합니다.
- 대통령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시고,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소서
- 나라의 경제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시고 국방과 안보를 튼튼하게 하소서
- 민족상잔의 전쟁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전쟁의 모략을 아히도벨의 모략과 같이 폐하여 주소서
- 북한의 백성을 굶겨 죽이는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져 북한의 백성이 압제에서 해방되고 북한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 북한 땅에 거룩한 부흥의 불길기 일어나,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소서
- 북한 각 지역에 신학교, 학교, 병원, 교회가 구축구축에 세워지게 하소서
- 한국교회가 이를 위한 영적 자원과 물질 자원과 인적 자원을 준비하게 하소서
- 통일을 속히 허락하시고 이를 감당할 지도자를 예비하소서
- 통일 이후, 남과 북이 분열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 통일 이후, 북한 땅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경제가 부흥하여 남과 북의 차이가 사라지게 하소서
- 통일 이후, 남한의 백성들이 북한의 백성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 통일 이후, 한국교회에 부흥의 새 바람이 불어, 한반도 백성의 50퍼센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성도가 깨어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 교회와 성도가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 교회와 성도 안의 음란을 회개합니다.
- 교회와 성도 안에 만연한 자기 의와 정치적 비방을 회개합니다.
-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죽이는 죄를 회개합니다.
-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 한국교회가 물질 우상숭배를 하고, 온전한 심일조를 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 한국교회가 시간 우상숭배를 하고, 온전한 주일성수를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 위의 모든 것을 타인의 죄가 아닌, 내 죄로 알고 회개합니다.
- 한국교회에 전국적이고 전면적인 거룩한 부흥의 불을 허락하소서
- 한국교회에 주일학교, 청소년, 대학생, 청년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앙부흥 운동을 허락하소서
- 한국교회에 미국의 19세기 신앙부흥운동을 능가하는 거대한 신앙부흥운동의 불을 허락하소서
- 한국교회에 기도와 회개, 거룩과 성결의 영을 부어 주소서
- 기도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되게 하소서
-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의 능력, 강단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 한국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선교를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and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2Chronicles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야사 7:14

미래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된 신본주의 교회입니다. 오직 성경이 유일하고 정확무오하며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미래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신천지 등 이단은 교회 외부 성경공부 및 상담으로 접근합니다. 본 교회는 성도들의 외부 집회 및 모임 참여를 금지합니다. 성도들 상호 간 사업 투자 권유 및 다단계 관련 활동은 교회 공동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금하고 있습니다.

• 예배 및 설교의 녹음은 교회의 사전 허락 없이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설교는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캠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의 주제로 주말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 안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겸손과 순종, 하나님 중심의 사고체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세례식 2026년 상반기 세례식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신청자 분들은 오늘 교육이 있으니 오전예배 후 신한국 목사님과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시: 2026년 3월 29일(주일 오전예배), 교육 일정: 2026년 3월 22일(주일 오전예배 이후)

일본선교 일시: 2026년 3월 30일(월)-4월 3일(금), 장소: 고후 사랑의교회



• 섬기는 사람들 • Church Leadership

담임목사 김현민

부 목 사 신한국 강도사 지유빈 전도사 박신혜 교육전도사 김성영

장 로 최형렬 유부혁 고정원

간 사 김영일 류윤정 박지윤 서항미 송진영 장정인 우수진 김진영 최진욱 정소영

황은혜 김병근 박명선 윤선림 윤수민 최예봄

지 휘 자 나은진 반 주 자 이성오 우유리 음악팀간사 백호준 주방팀간사 조서연

• 예배안내 • Our Services

주일오전예배	주일 오전 11:00	새 벽 예 배	월-금 오전 6:00	영·유아부예배	주일 오전 10:20
주일오후예배	주일 오후 4:00	금 요 산 기도	금 오후 8:30	초 등 부 예 배	주일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 오후 7:30	열 방 기도 회	토 오후 3:00		

오시는 길

서울 중구 다동 155 센터플러스 3F 미래교회 (도로명: 남대문로9길 40) ☎ 02-739-7804

② 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도보 3분 ① 시청역 4번출구 도보 3분

주차담당 최진욱 간사 010.2748.4137



Faith Is the Substance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2026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Hebrews 11:1

주일
예배

11:00 AM

경배와 찬양 다같이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최진욱 간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14장 6-7절
 찬양 성가대
 설교 담임목사 [요(49)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찬양및기도 설교자
 봉헌기도 설교자
 축도 설교자

주일
오후
예배

4:00 PM

경배와 찬양 다같이
 성경봉독 다같이
 설교 담임목사
 찬양및기도 설교자
 축도 설교자

설교 : 담임목사 열왕기상 강해(58)

월-목 : 담임목사
금 : 신현국 목사

This Week's Services



Last Week's Message

2026. 3. 15 주일오전예배 담임목사 설교

요(48): 예수님: 길과 진리는 하나 요한복음 14장 6-7절

1.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분리된다면, 삶에 어떠한 준칙도 제공하지 못한다. 길은 반드시 진리여야만 하고 생명이 있어야 한다. 길의 일차적 시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차적 관점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길이다.

2.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 니르릇을 통해 알 수 있다. 니르릇은 유능했다. 그는 바벨론에서 니느웨까지 확장해서 인류 문명의 최초의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그는 현명한 통치자가 아닌 폭력적인 압제자의 면모가 강했다. 문명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바벨탑 문명을 건설하고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사실에 그의 원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처럼 그의 왕국을 단번에 무너트리라고 하셨다.

3.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까? 첫째, 악을 떠나야 한다. 시편 37장 1~2절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과 시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속히 쇠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성공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법이라는 것이다. 즉 옳기 말씀처럼 죄를 떠나는 것이 지혜다.

4. 둘째, 성실하고 의욕은 있으나 무능한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성경의 예가 르호보암이다. 그는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자질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다. 결국 그의 그릇된 판단으로 열 개 지파를 수성하지 못하고 두 개 지파만 유지를 했다.

5. 셋째, 자신의 우수한 자질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라고 말씀하셨고, 전도서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도 말씀하셨다. 즉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인생의 방향과 추이를 모두 알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6. 잠언 3장 5절~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원수 마귀의 미혹은 결국 우리 삶에 악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7. 시편 23장에서 푸른 초장이 먼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먼저다. 즉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경로다. 왜일까?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유와 무를 혹은 그 무엇이든지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연단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 힘을 길러내는 시간이다. 따라서 길은 진리와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그 길이 장기적으로 내게 유익이 될지 아닐지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은 선한 길을 현시하신다. 주님과 인격적 친밀함의 신앙이 필요한 이유다.

요약 | 한희진 성도

국내 및 국외 선교현황 Missions

요코하마 정지문 선교사 요시무라 선교사 광보연 선교사 후쿠시마 박금석 선교사 츠쿠바 채연배 선교사
 삿포로 진명진 선교사(GMS) 감비아 김경섭 선교사 파라과이 홍사순 선교사
 농어촌교회 방방지역 거제 푸른교회 청운효자동 관내 저소득 가정 장학금 후원(6가정)
 극동방송 후원

봉사와 섬김 Prayer and Service

	대표기도	성전청소		대표기도	성전청소
3.22	최진욱 간사	3조	4.5	최형렬 장로	4조
3.29	황은혜 간사	2조	4.12	김병근 간사	5조

헌 금 Offering

감사 나주홍 김지오 백용진&정영란 성유진 안지은 안지훈 유부혁&박지윤 유하나 이민호 이현주B 정하림&정하람 주수미 주창현 지혜원 최수경 최진욱&임예은

십일조 김진세 김미란 김성희 김의진 김준영 김지오 나주홍 박명선 백용진&정영란 송진영 안정우&장정인 안종현&정수지 윤수민 이민규&이연우 정기라 한승희

건축 백용진&정영란 최진욱&임예은

선교 백용진&정영란 성현재&서향미 이은경

온라인헌금 안내

미래교회 KEB하나
272-910021-96104
이체명 예시(김미래십일조 / 박미래감사)

건축헌금 KEB하나
272-910021-97704

주말캠프 KEB하나
272-910031-92904